

코웨이 '저가 렌탈' 내놓을까

(1만원대)

뉴스카페

생활가전 1위 업체인 코웨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후발 주자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시장에 들어가자니 기존 고가 전략과 충돌하고, 안 들어가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안마의자 국내 1위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말 필터를 사용자 스스로 갈아 끼울 수 있게 한 저가 정수기를 출시했다. 첫 방송에서만 27억5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바디프랜드 측은 전했다. 위니아만도 위닉스 등도 비슷한 유형의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수나 관리소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코웨이는 기존의 방문 관리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 나면 기본 성능만 있는 정수기를 싸게 렌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월등한 방문관리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사보다 렌탈

료를 높게 유지해 왔는데, 최근 월 렌탈료 1만원대의 저가 제품을 내놓은 업체들이 늘어나 저가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관리형' 제품뿐 아니라 저가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후발주자인 동양매직 교원 쿠키전자 등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코웨이는 또 초고가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정수가 공기청정기 비례 연수기 등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고객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며 "렌탈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저가와 초고가 전략을 동시에 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웨이가 이런 선택을 확실히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사 제품끼리 경쟁해 전체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웨이의 강점은 방문관리 서비스를 통해 높은 마진을 얻는 고가 전략인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저가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제니컴 산업용 자외선 센서

자외선 센서 국산화 성공 ... "해외시장 공략"

제니컴은 자연광,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다양한 광원의 자외선을 감지하는 센서를 만드는 업체다. 이 센서를 활용해 자외선 살균 정화장치나 LED 관련 장치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측정해 고장이나 교체시기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설계한다.

김복경 제니컴 대표는 "웨이퍼(반도체 기판)부터 시스템까지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파장 자외선 감지 제니컴은 갈륨나이트라이드(GaN)로 만든 센서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별도의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파장의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센서를 활용해 지난해 자체 개발에 성공한 자외선 측정기는 독일 가스수도협회(DVGW) 기준을 통과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DVGW 기준을 통과했다고 김 대표는 소개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선박 평형수 자외선 살균장치에 들어가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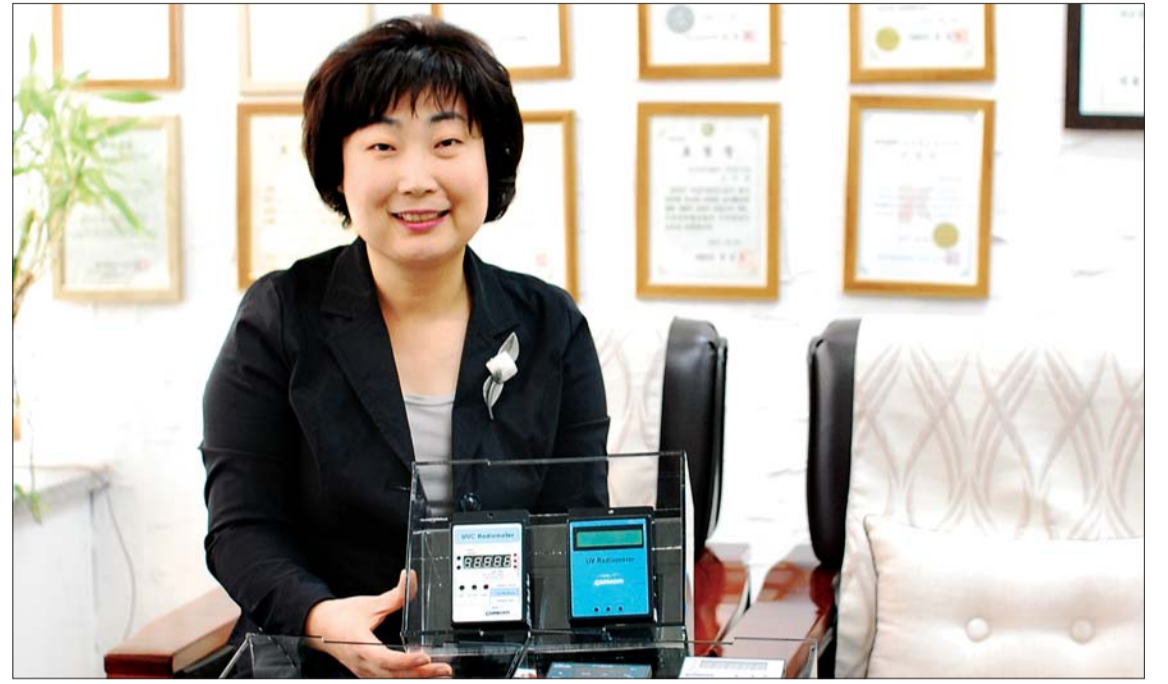
외선 측정기의 시제품 평가를 마치고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제니컴은 자외선 센서 부품 및 완제품 판매로 지난해 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홍콩, 유럽연합(EU) 등으로 5억원어치의 부품을 수출했다. ZED, 닥

국내시장 50% 장악 현대중 등 대기업에 납품 스마트폰 시장도 진출

터 그라벨 등 독일 업체들이 주도하는 자외선 센서 시장에서 AS, 고객 맞춤형 등 서비스 강점을 내세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제니컴 자체적으로 자외선 센서 국내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독일 업체에 비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한다"며 "수입품의 경우 고장나면 물리적 거리나 언



김복경 제니컴 대표가 자외선 센서 응용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제니컴

어 등으로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니컴은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선 다른 제품을 대어이기도 하는 등 국내 업체로서의 강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업체 중엔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만 생산하는 경우도 많다"며 "제니컴은 부품과 완제품을 모두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양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실내용, 옥외용, 고온용 등 다양한 용도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에 탑재 최근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자외선 센서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TV 리모컨 등에 널리 사용되는 적외선에 비해 자외선 센서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

다"며 "자외선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쪽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니컴은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자외선 센서를 장착하면 실내외로 구분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추가명기자 gychu@hankyung.com

2014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2014. 10.13 - 10.24

<http://kr.ncsoft.com>

2014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우주를 정복할 자

타승

하이라이프

2014. 10.13 - 10.24

노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당신! 당신의 창의성을 엔씨소프트에서 실현하세요.

작은 디테일이라도 어떻게 실천하고 다듬는가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박창수 네오플램 대표

"주방용품에 디자인 입혀 1000억대 성장"

"매출(지난해 1250억원)의 절반 가량인 550억원을 투자해 강원 원주에 대규모 냄비·프라이팬 생산 공장 포함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네오플램의 박창수 대표(사진)는 12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는 "전국 여덟 곳에 흩어져 있던 물류창고를 한데 모았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주에서 현지 인력 350여명을 신규 채용해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1990년 설립된 네오플램은 생활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체였다. 당시 이름은 하이엘무역이었고, 바비큐 그릴 세계 1위인



독일 웨버와 아이스박스 최강자인 미국 이글루 제품 등을 들여와 팔았다. 하지만 유통사업만으로는 회사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06년 네오플램으로 사명을 바꾸고 주방용품 제조업에 뛰어 들었다. 주력 제품은 항공 소재 마이크로폼으로 만든 '항공도마'였다. 세라믹 코팅을 입힌 프라이팬도 히트를 쳤다.

원주에 550억 들여 공장 건설 100년 기업 위해 불경기 투자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회계사였던 박 대표는 학교 선배인 장태영 네오플램 고문의 권유로 회사에 합류했다. 박 대표는 "항공도마와 세라믹 프라이팬 모두 세계 시장에서 1등 하는 제품"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해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0억원이 채 안 됐던 매출은 지난해 1250억원으로 12배 이상 불어났다.

네오플램의 간판상품은 팬시용품같이 예쁜 주방용품이다. 박 대표는 "후발주자라서 디자인과 색상 등으로 차별화했다"며 "빨주노초파란보 무지개 시리즈와 연분홍 등 파스텔 색상을 입힌 세라믹 냄비와 프라이팬 등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가격은 중간 정도로 책정했다.

회사 매출의 60% 정도는 미국 주방용품브랜드 옥스 등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매년 30%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 앞으로는 자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2020년까지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 소형 가전, 생활용품 등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에이스한지텍 신개념 의료용 거치대 출시

인체의 관절 역할을 하는 힌지를 활용해 산업기기를 만드는 에이스한지텍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정보기술(IT) 기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거치대를 12일 내놨다. '스마트션 포우즈'란 이름의 모니터 거치대는 최대 4개까지 레일 형태로 거치할 수 있고 선반과 LED(발광다이오드) 스탠드, 칸막이 등의 책상 액세서리를 인체공학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엘레핀'은 전통 침대와 연결해 태블릿PC를 거치할 수 있게 한 제품으로, 최대 120cm까지 늘어나고 2kg까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 에이스한지텍은 지난달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자동차 타고 '승승' SK플래닛 11번가는 12일 서울 을지로2가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아용 승용완구를 최대 33% 할인판매하는 '우리아이 키즈 모터쇼' 행사를 열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